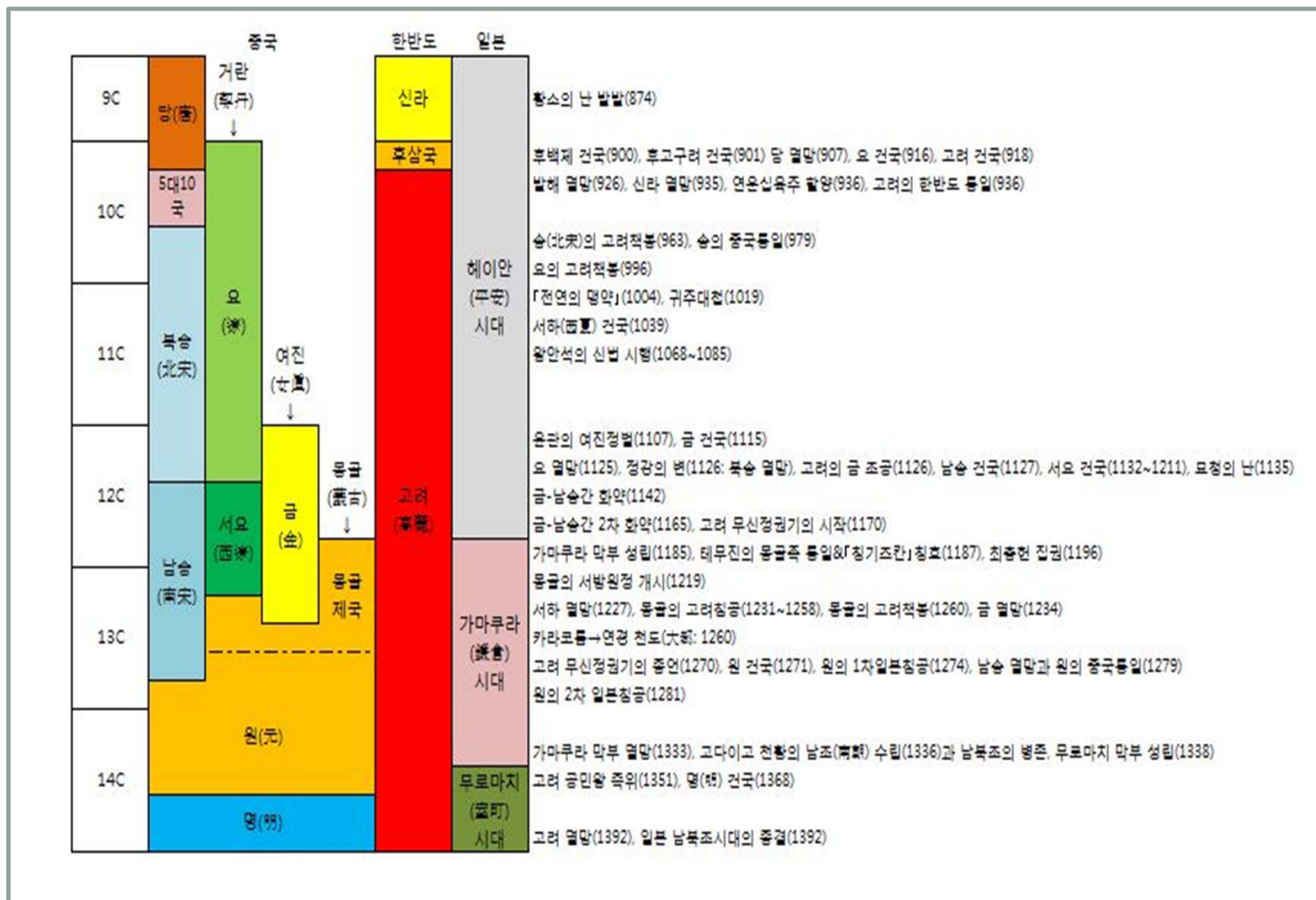


08. 동아시아 중세의 시작과 한중일 삼국의 역사적 흐름 ②

현대 동아시아의 형성(2020s)
독습용 보조교재 & 과제

0. 참고연표 (ppt07과 동일)



1. 한반도: 후삼국 시대와 고려의 성립

•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시대의 시작

: 한국고대사의 마지막 왕조 신라의 쇠망은 흔히 국왕 및 지배 귀족들의 향락/사치로 설명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신라가 수용했던 중국고대의 중앙집권적 국가체제 모델, 즉 율령제 국가모델이 내포한 문제점들에 있었다(중국사 해당부분을 참조).

: 당말 절도사 등의 무장세력이 중앙의 약화를 틈타 지방에서 할거한 것처럼, 한반도 각지에서도 자신의 무력만을 의지하여 신라로부터 독립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후백제(900) · 후고구려(901)로 수렴되어, 유명무실해진 신라와 함께 후삼국 시대를 열게 된다(~936).

• 고려의 한반도 통일(936)과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재건

: 후삼국시대라는 혼란기를 수습한 고려 왕조에서도 당말~송의 왕조교체기에서 나타난 일부 변화들을 볼 수 있다. (계속)

1. 한반도: 후삼국 시대와 고려의 성립

• 고려의 한반도 통일(936)과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재건 (계속)

→(계속) 골품제에 입각한 종래의 지배계급들은 몰락했고(다만 고려는 신라의 육두품 출신자들은 우대), 고려의 건국과 한반도 통일에 크게 기여했던 지방 호족세력들은 새로운 왕조의 지배 계급이 될 기회를 맞이했다. 다만 건국 초기, 이들 지방호족들은 자신의 지배지역에서 후삼국시대와 다름 없이 半독립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半독립성을 빼앗아 국가와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지배계급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태조 왕건(王建) 이래 초기의 고려 왕들에게 급선무가 되었다.

: 지방호족들의 경제/군사력의 바탕으로 있던 노비들을 조사하여 상당수를 양인(良人) 신분으로 회복시킨 것(956)은, 강력한 군주권의 확립을 위한 첫 번째 시도가 되었고, 뒤이어 시행된 과거제가 그 뒤를 이었다(958). 과거제 시행은 동시에 할거로 인한 혼란의 「주범」인 무인들을 억누르고 문치주의를 시행하기 위함이기도 했다(중국과 마찬가지로).

1. 한반도: 후삼국 시대와 고려의 성립

- 고려의 한반도 통일(936)과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재건 (계속)
 - : 그 밖에 군주의 칭제(稱帝)와 독자적 연호 사용 역시 이상과 같은 군주권 재확립 목적에서 시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중앙의 개혁에 대해 일부 공신집단은 맹렬히 반발했지만, 광종(光宗)대의 대숙청으로 그 반발은 억제된다. 이후 개혁에 순응한 지배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보상(=전시과田柴科) 제도가 정비되며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는 궤도에 오른다.
- 고려 왕조의 사상적 경향...호족(豪族)취향의 반영
 - : 먼저 유교의 성장을 들 수 있다. 신라 후반부터 증가하는 당 유학생출신 유학자들(ex. 최치원)은, 그 신분적 한계 탓에 혈연(=골품)이 아닌 학업성취의 결과에 따른 인재등용을 주장했다. 이들의 바램은 신라말 그들과 연대한 호족세력들이 고려를 건국하면서 비로소 성취되는데, 그 결과 중앙 뿐 아니라 지방에도 유학교육기관이 설립되면서, 유학은 국가이념화한다.

1. 한반도: 후삼국 시대와 고려의 성립

• 고려 왕조의 사상적 경향...호족(豪族)취향의 반영 (계속)

: 또 다른 경향은 불교 선종(禪宗)의 대유행이다. 고대의 중앙정권이 교종을 선호한 반면, 선종은 신라말 이래 호족의 종교로 성장했다. 그 개인주의적 경향이 중앙에 반항하는 호족들에게 독립을 위한 사상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 참고로, 선종의 유행은 일본 중세의 특징이기도 하다. 고대일본 율령제 국가의 지배층(천황+귀족)을 밀어내고 일본중세를 주도하는 무사계급의 주된 종교가 선종이었음은 의미 있는 공통점이라 볼 수 있다.

: 마지막으로는 풍수지리설이다. 각지의 호족들은 이에 입각하여 저마다 자신들의 근거지를 명당이라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높이고 또한 합리화하고자 노력했다.

1. 한반도: 후삼국 시대와 고려의 성립

• 문벌 귀족사회의 동요와 「무신정권」의 등장

: 고려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옛 호족세력들 중 일부는 이제 중앙의 문벌귀족이 되어, 과거나 전시과를 통해 자신의 세력을 유지/확대해 나갔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 유력가문이 음서(蔭敍)를 남용하여 관직을 독점하고, 개간/겸병 등을 통해 사유지를 확대하여 힘을 키운 결과, 문벌귀족들 사이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 이런 유력귀족들 사이의 대립/항쟁은 먼저 반란의 형태로 나타났었다. 12C초 이자겸의 난,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묘청의 난은 이러한 귀족간 항쟁의 산물이라 해석된다.

: 그러나 이들 반란보다 고려사회를 보다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사건은 이런 귀족들의 권력다툼을 불만스레 지켜보던 무신들에 의해 일어난다. 건국 이래의 문치주의의 결과, 고려의 무신들은 정치/경제적으로도 문신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아 왔으며, 그 휘하의 군인들은 생계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다.

1. 한반도: 후삼국 시대와 고려의 성립

- 문벌 귀족사회의 동요와 「무신정권」의 등장 (계속)
: 결국 의종(毅宗)대에 정중부, 이의방 등 무신의 반란(1170)이 일어나 유력 문신들이 살해되고 무신들에 의한 정권이 수립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 한반도: 후삼국 시대와 고려의 성립

- 고려 무신정권의 동아시아적 유사성에 관하여

: 12C후반에 등장하여 근 1세기 동안 지속된 고려의 무신정권에 대한 상제는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대신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동아시아 고대 국가체제의 붕괴 이후, 무신(무인)들에 의한 권력찬탈이 한중일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 중국의 경우, 당대 절도사와 그 번진(藩鎮)이 중앙정계의 혼란을 틈타 점차 독립왕국化한 결과, 「5대」라는 무인들의 왕조가 화북에서 명멸하게 되었음은 이미 알아보았다. 한편, 후술하겠지만, 일본의 경우 천황과 외척세력, 불교사원세력 사이의 권력쟁탈전이 무사계급을 중앙정치에 진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최충헌이 고려왕권과 불교사원을 억압하며 자신의 권력기반을 안정화시킨 것처럼, 일본 최초의 군사정권인 가마쿠라 막부도 천황권과 불교사원을 견제하며 자신의 정권기반을 확대해 갔음은 동아시아 역사의 공통점으로서 흥미로운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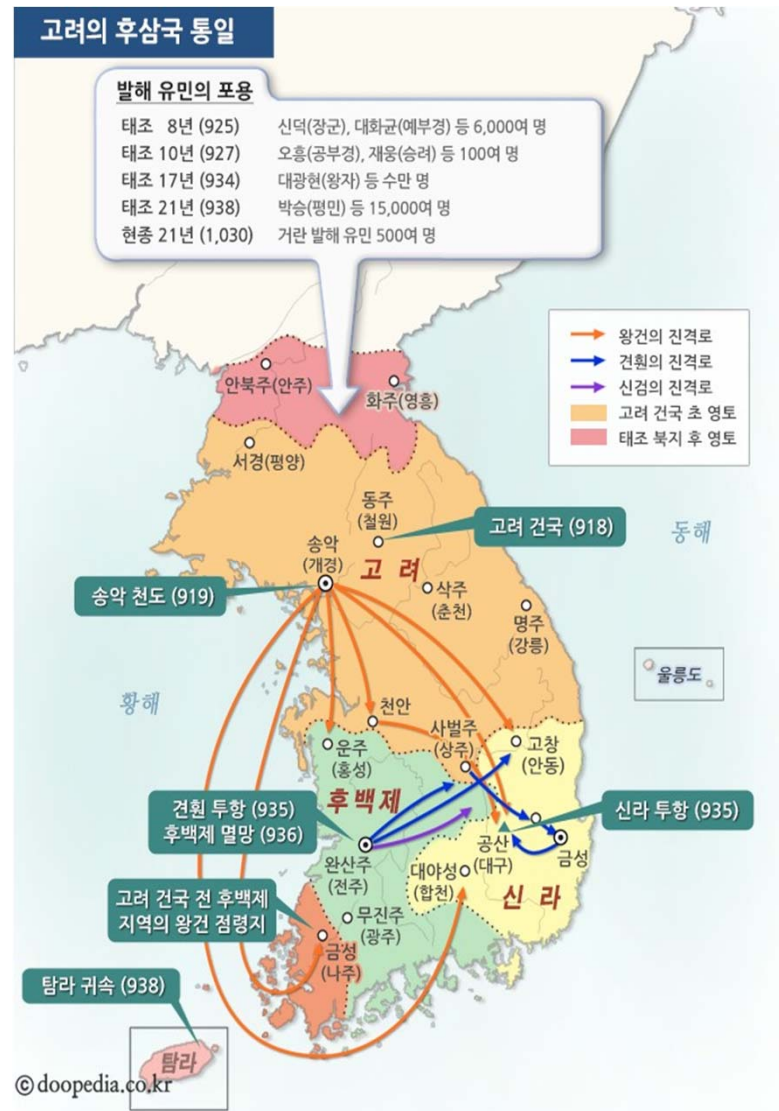
1. 한반도: 후삼국 시대와 고려의 성립

• 고려 무신정권의 동아시아적 유사성에 관하여 (계속)

: 게다가 고려 무신정권과 가마쿠라 막부의 지배를 동요시킨 존재가 양쪽 모두 몽골(元)이었음도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원은 이들 두 군사정권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였다. 삼별초의 대몽항쟁은 잘 알려져 있거니와, 가마쿠라 막부도 두 차례의 원군 침략에 대한 방어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주종관계를 맺은 가신들에게 그 보상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붕괴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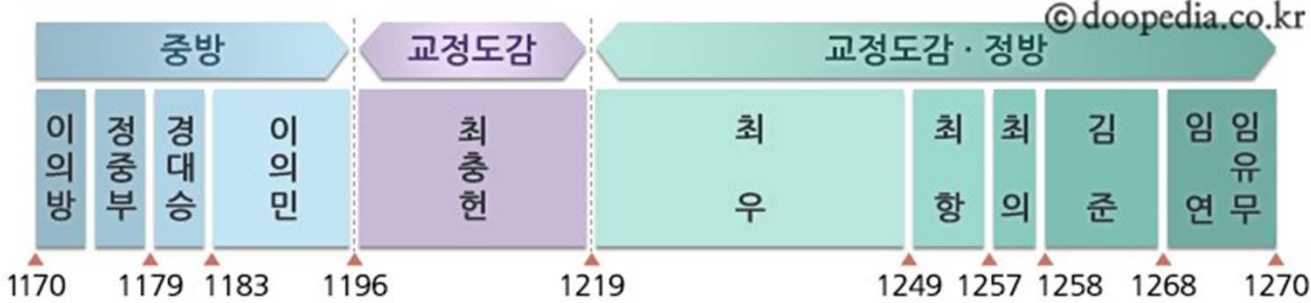
: 또한 원 왕조의 존재는 군사정권 하에서 위축되어 있던 양국의 군주에게 정치적으로 재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군사정권에게 위협적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과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보다 생각해 볼 기회를 마련했는데, 어쩌면 이런 외부로부터의 계기에 대해 고려왕과 일본 천황이 대처한 방식의 차이, 혹은 이들이 당시 처해 있던 환경의 차이가 향후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지배체제가 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되는 한 원인일 수도 있다.

1. 한반도: 후삼국 시대와 고려의 성립: 참고도판



1. 한반도: 후삼국 시대와 고려의 성립: 참고도판

무신정권의 변천과 권력기구



신분구조와 가족 제도



2. 일본열도: 고대의 종언과 가마쿠라(鎌倉) 막부의 등장

• 헤이안(平安)시대와 고대 율령제국가의 변질

: 고대중국의 율령제 지배체제와 왕토왕민(王土王民) 사상을 수용하여 동일한 중앙집권 국가를 수립하려던 일본의 노력은 8C 나라시대(奈良時代)에 이르러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율령체제가 지닌 내부적 결함들은 일본에서도 곧바로 표면화한다. 즉, 조세와 병역 면에서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 농민들이 토지를 이탈함으로써, 국가재정과 군사운용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 그 결과, 나라시대에 간신히 성립된 귀족세력에 대한 군주권(=천황)의 우위는 곧바로 역전되며, 부족한 조세수입을 메우기 위해 조정이 개간을 장려한 결과, 유력귀족가문과 불교사원세력은 앞다투어 개간에 뛰어들어 대토지를 확보하고(=장원) 그 면세권까지 얻어낸다. 그 결과로 군주권이 더욱 약화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런 귀족세력의 비교우위는 나라의 다음 시대인 헤이안 시대(794~12C말)의 가장 큰 특징이다.

2. 일본열도: 고대의 종언과 가마쿠라(鎌倉) 막부의 등장

• 헤이안(平安)시대와 고대 율령제국가의 변질 (계속)

: 또한 나라시대까지 중국이나 한반도의 문물수용에 적극적이던 것(ex. 견당사)과 달리, 헤이안 시대의 일본은 더 이상 예전만큼의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고, 당 멸망 이후로는 중국의 조공/책봉체제로부터도 이탈하였다. (민간상인들의 교역은 지속)

: 헤이안 시대의 최고 실권자는 천황의 외척 지위를 대대로 독점한 중앙귀족 후지와라(藤原) 일족이었다. 이들은 막대한 소유 장원에서 비롯된 경제력으로 중앙정치를 좌우했다. 또한 불교사원세력 역시 막대한 수의 장원과 무력(승병집단)을 보유하여 군주권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 11C 후반에 시작된 「원정」(院政)이란 정치형태는 이런 상황에 대한 군주 측의 반격이었다. 이른 시기에 자식에게 양위한 前군주(=상황上皇) 자신이 율령제의 제약을 벗어나 대규모 장원 소유자가 됨으로써, 그 경제력으로 상기 세력들에게 대항하고자 한 것이다.

2. 일본열도: 고대의 종언과 가마쿠라(鎌倉) 막부의 등장

• 헤이안(平安)시대와 고대 율령제국가의 변질 (계속)

: 그리고 역대 상황들은 지방에서 대두하던 무사집단(→고대 징병제 붕괴 이후 생겨난 자경집단)을 고용하여 상기 세력들에 무력 면에서도 대항하고자 했다. 당연히 그 상대 역시 무사들을 고용했으며, 그 결과 무사집단의 중앙정치에서의 발언권이 증대하였다. 전문적 군사집단이 정치적으로도 힘을 얻게 되자, 그 고용주와의 역학관계가 뒤바뀌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였다.

• 다이라(平)일족과 미나모토(源) 일족의 쟁란 (12C 후반)

: 이렇게 중앙에 진출한 대표적 무사집단이 다이라 일족과 미나모토 일족이다. 다이라 일족은 상황의 비호 아래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기존의 지배자와 마찬가지로 방법(=장원 획득)으로 힘을 키웠으며, 아울러 송(宋)과의 사무역을 추진/독점하여 이로 부터도 막대한 이윤을 얻었다. 다만 일족의 과도한 권력독점으로 주위의 반발을 산 결과, 반대세력들이 또 다른 유력 무사집단인 미나모토 일족을 중심으로 결집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일본열도: 고대의 종언과 가마쿠라(鎌倉) 막부의 등장

• 가마쿠라 막부의 성립

: 1180년대 벌어진 두 무사집단 사이의 무력충돌은 미나모토 일족의 승리로 돌아갔다. 당시의 무사집단은 봉건제적 주종계약에 입각하여 운영되었다. 따라서 당시 미나모토 일족의 지도자 요리토모(頼朝)는 다이라 일족과의 전쟁에 군사적으로 봉사해 준 휘하 무사들(=가신단)에게 다이라 일족의 토지를 은상(恩賞)으로 수여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권력기반이던 동일본(東日本) 지역의 무사들의 지지를 재확인 받게 된다.

: 다이라 일족이 기존의 율령제적 정치기구를 통해 권력을 행사했던 것과는 달리(=귀족化), 요리토모는 무사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다. 그 지배조직은 자신의 가신단을 확대한 것이었으며, 고대의 율령이 아닌 무사들의 관습법으로 자신의 가신단, 나아가서는 일본 전역을 지배했다. 애당초 천황이 있는 교토(京都)가 아닌 현재의 도쿄(東京) 근처의 자신의 근거지(=가마쿠라)에서 정무를 개시했다는 점 자체가 이런 요리토모의 태도를 잘 보여 준다.

2. 일본열도: 고대의 종언과 가마쿠라(鎌倉) 막부의 등장

• 가마쿠라 막부의 성립 (계속)

: 다만 요리토모가 일본 최초의 무인정권을 열었다 해도, 고대 율령제 하의 지배층(천황, 조정귀족, 불교사원 등)의 권력이 일시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교토·오사카(大阪) 일대가 중심인 서일본(西日本)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들이 장원의 지배자로서 종래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즉, 가마쿠라 막부 성립 직후의 일본은 사실상 동서로 권력이 양분되어 있었던 것이다.

: 따라서 가마쿠라 막부는 일본전역의 치안유지를 핑계로, 막부의 가신들을 일본 전역에 경찰 책임자(슈고守護&지토地頭)로서 파견하기 시작하여, 옛 지배층들의 지배지역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3C 전반에 이르면 서일본 지역에서도 막부의 발언권은 상당히 커지게 된다.

2. 일본열도: 고대의 종언과 가마쿠라(鎌倉) 막부의 등장

• 가마쿠라 막부의 동요와 일본판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의 시작

: 전술했듯이 13C 후반 고려의 무신정권을 쓰러트린 원의 다음 타겟은 일본이었다. 두 차례의 일본원정은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그렇다고 가마쿠라 막부의 일본지배에 아무런 변화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 즉, 원의 침공은 가마쿠라 막부가 경험한 최초의 방어전이었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정복전이 아니었던 탓에, 전쟁에 승리해도 자신의 부담으로 전쟁에 참여한 막부의 가신들에게 나누어 줄 은상(=토지)가 없었던 것이다.

: 게다가 막부의 쇼군(將軍) 직계일족은 원의 침공을 가신단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높일 기회로 간주하여, 많은 이권이 걸린 슈고와 지토 자리에, 종래의 가신들을 해임하고 대신 자신들 일족을 집어 넣었다. 경제력의 발전에 따른 장원제도의 동요와 농민반란, 그리고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은 막부 가신단 층의 불만확대가 결국 가마쿠라 막부의 권력약화로 이어진다.

2. 일본열도: 고대의 종언과 가마쿠라(鎌倉) 막부의 등장

• 가마쿠라 막부의 동요와 일본판 남북조시대의 시작 (계속)

: 한편 일본의 천황은 헤이안 시대 이래 정치적 실권자의 지위를 잃고 명목상의 군주로만 존속하고 있었다. 14C초 막부의 권력약화가 보다 현저해지자, 당시의 천황 고다이고(後醍醐)는 이를 율령제 국가와 천황친정(親政)을 부활시킬 절호의 기회라 판단했다(=고대로의 회귀).

: 결국 고다이고는 막부 타도를 선언하며 병력을 일으키며, 이에 막부에 불만을 품은 다수의 무사집단들이 가세하여, 가마쿠라 막부는 멸망하게 된다(1333). 하지만 무사집단들이 고다이고를 도와 막부를 타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고다이고가 내건 율령제 국가의 부활까지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무사들은 장원의 소유자들(so 율령제의 토지제도와 모순)이었으며, 무엇보다 무사라는 존재 자체가 율령제와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일본열도: 고대의 종언과 가마쿠라(鎌倉) 막부의 등장

• 가마쿠라 막부의 동요와 일본판 남북조시대의 시작 (계속)

: 그 결과 고다이고 측에 가세했던 무사집단 중 최유력자인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는 고다이고 천황을 폐위하고, 자신에게 거역하지 않을 다른 천황을 즉위시킨다(1336). 그러자 고다이고는 교토 남쪽의 험지 요시노(吉野)로 도망하여 또 하나의 조정을 열고는(=남조南朝), 다카우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교토 조정(=北朝)에 맞서는데, 이것이 일본의 역사가들이 후일 중국사에서 차용하여 「남북조시대」라 부르는, 일본사상 유례없는 두 명의 천황이 동시 공존하던 시대이다.

: 한편 교토의 다카우지는 자신이 즉위시킨 북조의 천황이 요청했다는 구실로, 가마쿠라 막부를 잇는 두 번째의 무인정권,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를 수립한다. 무로마치 시대의 시작이다.(1336~1573)

2. 일본열도: 고대의 종언과 가마쿠라(鎌倉) 막부의 등장

• 일본판 무신정권인 「막부」(幕府)에 관하여

: 「막부」란 용어는 직역하면 군사캠프 정도의 의미로, 고위 군사지도자가 전시에 파견된 지역에서 임시로 여는 군정(軍政)기관의 총칭이라 하겠다. 중국 한 왕조 시대에 시작되었으며, 참고로 막부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일본어 「쇼군」(將軍: 征夷大將軍) 역시 중국사의 용어를 차용한 것이다.

: 일본 최초의 막부를 세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처음부터 고대왕조를 대신할 새로운 전국정권으로서 막부의 수립을 계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아마도 자신들이 이미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배권만을 조정으로부터 승인 받을 심산이었으나, 옛 지배층과의 충돌로 결과적으로 일본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었다고 보는 편이 보다 현실에 가까울 것이다. 이에 반해 가마쿠라 막부 뒤에 세워진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는 처음부터 명확히 전국정권을 지향하였다. 가마쿠라 막부의 선례를 처음부터 명확히 의식했던 것이다. 반대로 가마쿠라 막부의 경우, 처음부터 자신들의 정권이란 어떤 형태여야 한다는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셈이 된다.

2. 일본열도: 고대의 종언과 가마쿠라(鎌倉) 막부의 등장

- 일본판 무신정권인 「막부」(幕府)에 관하여 (계속)

: 또한 가마쿠라에서 에도 막부에 이르는 역대의 쇼군들이 자신의 정권을 「막부」라 부른 것은 아니었으며, 그 가신들이 자신의 주군인 쇼군을 실제 그렇게 부른 것도 아니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 용어는 모두 에도시대의 유학자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보며 이들 정권이 중국사의 막부, 장군과 심히 유사하다 판단하여 붙인, 일종의 학문용어다.

: 12C 후반에 시작된 「막부」라는 군사정권에 의한 지배가 이후 19C 중엽에까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한 이들은 12C 당시 거의 없었고, 반대로 19C 초 기준에서 이미 몇 백 년간 정치적 실권과는 무관하게 교토의 궁궐 안에서만 일생을 보내던 천황이란 존재가 다시 역사의 주역이 될 것이라 생각한 이들도 거의 없었다.

2. 일본열도: 고대의 종언과 가마쿠라(鎌倉) 막부의 등장: 참고도판



4. 과제

Q. 일본의 군사정권(=막부)이 중국/한반도와는 다른 길을 걸어간 이유?

: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군사정권은 고대 율령제 사회의 동요로 중앙권력이 약화되면서 출현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다만 중한의 경우, 분열/혼란기에 출현한 군사정권은 다시금 중앙집권을 지향하는 신왕조가 출현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소멸되었음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도 살펴 보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본 보조교재(+지난 보조교재)에서 일부 이 문제와 관련된 힌트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 질문에 하나의 유일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재의 내용과 각자의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주론을 전개해 보시오. (분량 및 작성요령은 종전과 동일함)